6월10일 수능 모의평가

사회 탐구 영역

분석 및 해설

윤 리

정 답										
	01 ③	02 ①	03 ①	04 ⑤	05 ⑤	06 ②	07 ②	08 ⑤	09 ④	10 ③
	11 ④	12 ④	13 ⑤	14 ③	15 ③	16 ④	17 ③	18 ②	19 ①	20 ⑤

출제 경향

이전의 모의평가나 수능에서 윤리 과목이 꽤 어려웠던 데 비해, 작년도 모의평가와 수능에서는 상대적으로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되었다. 이번 모의평가 역시 충실하게 학습에 임한 학생이라면 문제를 푸는 데 큰 어려움이 없는 수준에서 출제되었지만, 3~4문제는 여전히 높은 난이도를 유지하고 있다.

문제 유형을 살펴보면, 익숙한 지문을 제시하고 사상에 대한 기본 지식을 묻는 문제(1번, 2번, 7번, 16번, 18번, 19번, 20번)와 사상가들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묻는 문제(5번, 6번, 9번, 11번, 12번, 13번, 15번, 17번)들이 많았으며, 특정 사상가의 입장에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문제(4번, 10번)와 익숙하지 않은 지문을 제시하고 사상가를 유추하는 문제(8번, 14번, 17번)들이 출제되었다.

출제 영역을 살펴보면, 동양 윤리와 한국 윤리에서 9문제, 서양 윤리에서 6문제, Ⅰ단원의 사회 사상과 Ⅲ단원의 사회 사상 부분에서 3문제, Ⅰ단원의 인간과 윤리 관련 부분에서 1문제, 전통 윤리에서 1문제가 출제되었다. 윤리 사상에서 70% 가량의 문제를 출제하는 경향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나 작년

도 수능에 비해 동양 윤리와 한국 윤리의 비중이 약간 더 많다.

학습 대책

각 사상가의 관점에 대해 정확히 아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학습해야 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고난이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사상과 사상가의 교과서 밖의 심화된 내용이나 주요 관련 사상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또한 각 사상과 사상가와 관련된 심화 읽기 자료에 대한 독해 연습을 통해 여러 사상가들의 주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는지에 대해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출제 문항 분석

문항	난이도	출제 단원	출제 의도
1	하	Ⅰ	인간의 특성 이해
2	하	Ⅱ(전통 윤리)	전통적 남녀관 이해
3	중	Ⅱ	원효의 화쟁 사상에 기반한 삶의 태도 이해
4	중	Ⅱ	공리주의에 기반한 문제 해결
5	중	Ⅱ	성리학과 양명학의 관점 이해
6	상	Ⅱ	아리스토텔레스와 칸트의 특징 이해
7	하	Ⅰ, Ⅲ	마르크스의 이상 사회 이해
8	상	Ⅱ	데카르트의 사상 추론
9	중	Ⅱ	공자, 맹자, 노자의 사상적 입장 이해
10	하	Ⅱ	공자 사상에 기반한 문제 해결
11	중	Ⅱ, Ⅲ	플라톤, 헤겔, 홉스의 국가관 이해
12	하	Ⅱ	불교와 동학의 인간관 이해
13	중	Ⅱ	쇼펜하우어와 슈바이처의 현대 문명 비판 이해
14	상	Ⅱ	이이의 심성론 분석
15	중	Ⅰ(전통 윤리)	유학과 도가의 천관(天觀) 이해
16	하	Ⅰ	이데올로기의 특징 이해
17	중	Ⅱ	순자와 한비자의 사상적 입장 판단
18	중	Ⅱ	소크라테스의 소피스트 비판 이해
19	하	Ⅰ	개인주의의 특징 이해
20	중	Ⅱ	정약용의 특징 이해

해 설

01 '이것'은 '유희'이다. 유희는 생존을 위한 활동, 이해 관계를 떠나 삶의 재미를 추구하는 활동이다. 과거에 유희는 불건전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나 최근에는 긴장감 해소와 창조 활동의 원동력으로 긍정적인 면이 부각되어 인식되고 있다.

02 제시문은 남녀의 차이에 대한 전통적 관점이다. 전통적 남녀관은 음양(陰陽)론에 기초하고 있다. 음양론은 세상의 모든 것은 음과 양의 상대적이고 상반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어울려 있다는 것이다. 음양은 어원적으로 어두음과 밝음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음은 여성적인 것, 수동성, 추위, 어두움, 습기, 부드러움을 뜻하고, 양은 남성적인 것, 능동성, 더위, 밝음, 건조함, 굳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런 관점은 음양에 우열을 두지 않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파악하고 있다. 상대적이면서 또한 상호 보완적인 두 힘이 우주와 자연을 발생, 변화, 소멸시킨다는 것이 음양론이다. 남녀의 관계 역시 이러한 음양의 관계로 파악한다. 따라서 남녀는 서로 다르나 그 다름 때문에 우열이나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되며,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지향해야 한다.
ㄹ. 삼종지도(三從之道)란 여자는 어려서는 아버지, 결혼해서는 남편, 남편 사후에는 아들, 즉 평생 세 남자를 따라야 한다는 것으로 남성 우월적 관점의 표현이다.

03 제시문은 겉으로는 서로 달라 보이는 여러 종파도 근본적으로는 하나라는 원효의 화쟁 사상을 보여 준다. 원효는 자기만 옳다는 집착에 빠지는 순간 그 자신 스스로가 부처의 뜻을 잃어버리게 됨을 지적하고 집착과 아집에서 비롯된 차별 의식을 버리고 회통(會通)할 것을 강조한다.

04 제시문의 갑은 공리주의자 벤담의 주장이다. 벤담은 쾌락의 계산 가능성에 기반하여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도덕의 판단 기준으로 제시한 양적 공리주의자이므로, 제시된 문제 상황에서 P씨는 이러한 원리에 기반하여 주민의 최대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

05 갑은 주희, 을은 양명학이다. 주희는 개별 사물마다 모두 천리(天理)가 부여되어 있으므로 개별 사물에 내재된 이치를 파악[격물(格物)]하여 전체적인 앎에 이르러야[치지(致知)] 올바른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여긴다[선지 후행(先知後行)]. 왕수인은 심즉리(心卽理)에 기반하여 마음 속의 천리가 양지이며, 외부로부터 앎을 얻을 필요 없이 사욕을 극복하고 양지를 발휘하는 것[치양지(致良知)]만으로도 올바른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여긴다[지행합일(知行合一)]. 한편 도덕적 완성을 위해 인간에게 주어진 천리를 보존하고 인욕(人欲), 사욕(私慾)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은 주희와 왕수인의 공통적인 주장이다. ① 왕수인의 지행합일의 관점이다. ② 외부 사물에 대한 이치 탐구를 강조하는 주희의 주장이다. ③ 주희는 나의 마음 밖의 개별 사물도 각각의 이치를 가지고 있으므로 마음과 이치를 둘로 나누어 보았다고 할 수 있다. 왕수인은 마음이 곧 이치이므로 마음과 이치를 둘로 나누지 않았다. ④ 지식의 확충을 강조하는 것은 주희이다.

06 갑은 중용을 강조하는 아리스토텔레스, 을은 도덕 법칙을 무조건적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행위가 선이라고 주장한 칸트이다. A는 칸트에게는 부정적 응답이, 아리스토텔레스에게는 긍정적 대답이 나와야 하므로 이에 해당하는 질문은 ②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올바른 행위의 습관화를 강조하는 한편, 칸트는 모든 행위가 선의지, 즉 그것이 옳기 때문에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의지에 기반한 행위여야 함을 강조한다. ①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이란 후천적 노력의 결과라고 주장한다. ③, ④ 칸트는 올바른 행위를 위해 내면적 동기와 실천 이성으로 찾은 도덕 법칙을 의무로 받아들일 것을 주장한다. ⑤ 행위의 유용성에 기반한 도덕 판단은 소피스트, 공리주의, 실용주의로 이어지는 사상들이 강조하는 것으로 아리스토텔레스와 칸트 모두 주장하지 않는다.

07 제시문은 노동자 혁명을 통해 자본주의적인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를 철폐할 것을 역설한 마르크스의 주장이다. 마르크스가 제시한 이상 사회인 공산 사회는 생산력이 고도로 발전한 사회로,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사회이며, 전문화된 역할 분담, 즉 직업 없이 자유로이 원하는 일을 하며 자아 실현을 하는 사회이다.

08 데카르트는 확실한 것을 찾기 위하여 인간의 감각의 불확실성과 교활한 악령의 장난 등을 들어 회의(懷疑)를 진행하다가 결국 의심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분명히 존재해야 함을 근거로 들어 사유하는 존재의 확실성을 의심할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제출된 것이 제1명제인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이다. 제시문은 인간의 감각의 불확실성과 정신이 물체보다 더 잘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과정의 한 부분이다. ⑤ 데카르트는 전통적인 학문과 관습들이 확실한 근거 없는 인식이라고 생각한다. 확실한 인식이 가능하려면 확실한 인식을 위한 대상이 존재해야 하고, 주관 안에 이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존재해야 한다. 데카르트는 인간이 확실한 인식에 도달하는 이러한 능력을 '양식(bon sens)', '이성(la laison)' 또는 '자연의 빛(lumen naturae)'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참된 지식의 토대는 사유 능력 속에 이미 주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①은 듀이, ②는 쇼펜하우어, ④는 고르기아스의 주장이다. ③ 데카르트는 '사유'로부터 진리를 추구해 나간다.

09 갑은 정명(正名)을 주장한 공자, 을은 인정(仁政), 즉 불인인지심에 기반한 마음으로 백성을 다스릴 것을 주장한 맹자, 병은 인간의 인위와 분별지를 비판하고 무위의 정치를 해야 함을 주장한 노자이다. ④ 맹자는 공자의 정명(正名) 사상을 계승하여 민본주의적 역성 혁명 사상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폭군은 더 이상 왕이 아니므로 신하에 의해 교체되어도 신하가 도리를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①, ②, ③ 공자는 통치자가 먼저 군자다운 인격 형성하고 도덕과 예의로써 백성을 교화하는 덕치(德治), 즉 덕으로 다스릴 것을 주장하였다. 예치는 순자의 주장이고 상벌을 통한 질서 유지는 한비자의 주장이다. ⑤ 노자의 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10 공자는 제시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왕이 백성들을 도덕과 예의로 교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공자의 덕치(德治)이다. ① 엄벌주의는 한비자의 주장이다. ② 본성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순자의 입장이다. ④ 인위를 사회 혼란의 원인으로 제시하는 사상가는 노자이다. ⑤ 차별 없는 사랑을 해결책으로 내세우는 것은 묵자이다.

11 갑은 플라톤, 을은 헤겔, 병은 홉스이다. ① 플라톤은 민주주의를 부정적으로 본다. 헤겔의 국가주의의 입장도 국민이 의사 결정의 주체가 되거나 대표자를 선출해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이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② 플라톤은 국가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계약에 의해 국가가 성립했다고 보는 것은 홉스를 비롯한 사회 계약론자이다. ③ 절대 군주제를 상정하는 것은 홉스에 한한다. ④ 헤겔의 국가관에 의하면 국가는 그 자체로 목적이며, 홉스에 의하면 국가는 개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계약의 산물이므로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 본다는 지문은 타당하다. ⑤ 플라톤과 헤겔은 국가 내에서 개인의 자유와 행복이 실현된다고 보므로 국가와 개인과의 충돌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없다. 개인주의의 입장에서만 개인의 자유와 국가 권력이 충돌한다는 것을 전제한다.

12 (가)는 불교, (나)는 동학이다. ㉠은 정약용의 입장이고, ㉡ 인내천 사상은 인간이 곧 하늘이라는 사상으로 인간 존중을 나타낸다. ㉢ 불교는 보살을 이상적 인간상으로 제시하지만 지인, 신인은 도가의 주장이다. ㉣ 불교에서 모든 인간은 불성을 지닌 존재로서 평등을 강조한다. 불교가 세계적 종교가 될 수 있던 것은 평등 사상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동학에서도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하늘과 같은 존재로 파악한다.

13 제시문의 앞부분의 사상가는 쇼펜하우어이고, 뒷부분의 사상가는 슈바이처이다. 쇼펜하우어는 고통을 느끼는 모든 존재에 대해 동정과 연민을 도덕의 기초로 보며, 슈바이처는 살려는 의지를 가진 모든 존재에 대해 외경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두 사상가의 공통점은 윤리적 배려의 대상으로 인간뿐만 아니라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들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① 실존주의에 대한 설명이다. ② 기독교 등과 같은 종교적 입장이다. ③ 합리주의의 관점이다. ④ 과학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관점인데, 이러한 관점에서는 윤리의 범위를 확대하기 어렵다.

14 제시문은 이이의 주장이다. 이이에 따르면, 사단은 칠정 중 선한 것만을 가려낸 것으로, 이때 사단은 감정 중 중절한 부분 즉 감정이 드러나 적절한 부분이다. 즉, 희, 애(哀), 애(愛), 욕(慾) 등의 감정이 그 중절함을 갖춘 경우가 사단이다. ① 사단과 칠정은 모두 감정이다. ② 정약용의 주장이다. ③ 칠정 중 선한 부분이 사단이라는 것은 이이의 주장이다. ④ 칠정이 선한 본성을 형성시키는 작용은 아니다. 칠정은 인간의 감정이 드러난 상태이다. ⑤ 이발기수의 입장은 이황 고유의 입장이다. 이이는 이발기수라는 이황의 견해를 비판하였다.

15 (가)는 「시경」에 나오는 구절로서 유학 사상을 표현하고 있고, (나)는 장자의 글의 일부이다. ① 자연법칙으로 보는 것은 도가 사상이다. ② 특히 순자의 제천이용지(制天而用之)에 대한 설명이다. ④ 도가는 인격적 존재로서 하늘을 파악하지 않는다. 만물의 운행을 주재하는 인격적 존재로 보는 것은 묵자의 사상이다. ⑤ 유교에는 타당하지만, 도가 사상에서 하늘은 선과 악을 초월한 존재이다. 도가 사상에서는 선악 판단도 인간의 제한적이고 상대적인 관점에 불과하다고 본다.

16 이데올로기에 대한 설명이다. ㉠ 이데올로기는 어디까지나 가치 지향적이며, 가치 편향적이다. 이데올로기는 특정한 가치관을 전적으로 추구한다. ㉡ 이데올로기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 유토피아에 대한 설명이다. ㉣ 이데올로기는 추종자들을 충원하여 조직화시키고 이데올로기의 실현을 위한 헌신을 요구한다.

17 갑은 순자, 을은 법가이다. 특히 순자는 사회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예(禮)라는 기준을 세워 통치해야 한다고 보았다. 한비자는 객관적인 법으로 통치해야 하며, 주관적 요소가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 존비 친소의 차별에 따른 차등적 분배 기준이 바로 예이다. ㉡ 예악을 강조하는 것은 유학 일반의 공통점이다. ㉢ 순자도 유학의 입장에서 인의에 의한 교화를 강조하고 있고, 법가는 인간에 대한 교화 가능성을 전적으로 부정한다. 이점이 유교와 법가를 구별하는 결정적인 차이이다. ㉣ 순자와 한비자의 공통점은 인간의 본성을 이기적으로 보는 것이다. 다만 순자는 이기적 인간을 예의로 교화해야 한다고 본 반면, 법가는 인간의 이기심을 이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18 제시문은 소크라테스의 주장이다. 소크라테스의 입장에서는 소피스트의 주장은 진리의 절대적 기준을 부정하는 상대적 관점으로 윤리적 회의주의를 낳을 수 있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다. ① 연역법은 합리론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③ 합리론에 대한 설명이다. ④ 진리의 절대성을 인정하는 절대론적 입장이다. 소피스트의 입장과 정반대의 입장이다. ⑤ 소크라테스의 사상이다. 그러나 인간 척도론에 대한 비판은 될 수 없다.

19 제시문은 개인주의 사상에 대한 설명이다. ① 사회 유기체설이며, 이는 집단주의적 관점이다. ② 개인주의는 자유주의 사상을 전제로 한다. ③ 개인주의, 자유주의에 대한 설명이다. ④ 사회는 개인의 목적 실현을 위한 도구로서, 개인이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개인들의 합의, 즉 계약에 기초하여 형성된 것으로 본다. ⑤ 개인이 자기 이익에 대한 최상의 판단자이므로 국가는 개인의 영역에 함부로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이 개인주의, 자유주의의 입장이다.

20 제시문은 정약용의 성기호설에 대한 설명이다. 동물은 행동이 본능에 의해 정해져 있으나 인간에게는 자주지권이 부여되어 있어 선과 악으로 결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정약용의 기본 입장이다. ① 정약용은 사람의 혈기와 우주의 기는 구별되며, 인간을 자연 앞에 독존하는 자율적 주체로 보았다. ② 정약용은, 사람은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③ 정약용에 따르면, 사람의 본성은 곧 기호로서, 사람은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기호를 가지고 있으므로 본성이 후천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기호는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이다. ④ 주자의 사덕본구설에 대한 비판으로, 실천을 통해 사덕이 형성된다고 보았다. ⑤ 정약용은 인간의 욕구를 긍정적으로 파악하였다. 그에 따르면, 욕구가 있으므로 사회 발전이 가능하며, 개인에게 있어서도 삶의 추동력이 된다. 이러한 점에서 성리학과 양명학 등 신유학과 차이가 있다.